

광주시교육청, ‘수학온다 학교’로 학습 혁신 박차

초·중 20개교 참여 본격 운영
학생 중심 탐구·멘토링 강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수학교육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되찾고, 성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학온다(on多) 학교’가 올해 처음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7일 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은 지난 달 30일 관내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12곳 등 총 20개 학교를 ‘수학온다 학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들은 오는 12월까지 학생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수학온다 학교’는 기존의 주입식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배우는 학습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를 통해 학습 부진을 줄이고, 수학적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이번



광주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이 지난 3일 뉴턴실에서 ‘수학온다(on多)’ 운영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역량 강화 연수에서 본량초 양종현 교사가 수학교육의 변화 방향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사업의 가장 큰 취지다.

선정된 학교들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과 행정지원을 받아 △수학기초 역량 및 자신감 배양 △활동 중심 수학교육 활성화 △교원 연구문화 조성 등 세 가지 필

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 각 학교의 특색을 살린 선택 과제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의 기초 역량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사전 수학 클리닉 검사를 실

시한 뒤, 학생 간 멘토링을 연계해 학습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AI 기반 수학 학습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구·놀이 게임을 활용한 수업, 방과후 수학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탐구와 체험 활동 중심의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학동아리와 교내 수학 행사, 프로젝트 학습 등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학을 실생활과 연결해 이해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교원의 전문성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교내 수학교사 연구동아리와 수학 수업나눔 활동, 전문 연수 등을 통해 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학교별 우수 사례를 공유해 협력적 연구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 학교에서는 수학 체험 중심 현장학습과 학급별 수학 놀이터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며, 수학이 재미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사업에 앞서 창의융합교육원은 지난 3일 본원 뉴턴실에서 ‘수학온다 학교’ 대상 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열었다.

연수에서는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을 수상한 본량초 양종현 교사가 ‘수학 나눔으로 길을 열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실천 전략과 수학교육의 변화 방향을 공유했다.

임미옥 창의융합교육원장은 “수학교육 혁신은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과제”라며 “각 학교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수학교육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즐거움과 자신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교육청-캄보디아, 다문화·한국어 교육 협력 강화

이주배경학생 맞춤 지원 논의 활발
국제교류·교육정책 협력 확대

전라남도교육청이 캄보디아 교육계 지도자들과 함께 다문화 및 한국어 교육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며 양국 간 교육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교육청·청소년체육부 및 사립·차관보를 비롯한 현지 교육 관계자와 한국어 채택교 교장단 23명은 지난 2일 전남 영암 대불초등학교를 찾아 한국어 학급 수업을 참관하고 교실, 특별실, 도서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방문단은 수업 운영 방식과 학생 참여 중심 활동을 꼼꼼히 살피며, 외국인 학생의 언어 적응과 학업 지원에 대해 교직원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방문단은 “체계적이고 따뜻한 교육환경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을 방문한 방문단은 김



캄보디아 방문단이 지난 2일 영암 대불초등학교를 찾아 한국어 학급 수업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대중 도교육감과 만나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정책과 양국 교육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캄보디아 측은 전남 지역 고등학교와 자국 고등학교 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추진을 제안했고, 전남교육청은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다문화교육과 국제 교육 정책을 연계해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와 한국어 교육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 전남 교원 16명이 캄보디아 현지를 찾아 한국어 교원 연수를 진행했으며, 올해 7월에도 후속 연수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양국 교사의 협력 수업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교육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방문단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다양한 문화 이해교육이 인상적이었다”며 “캄보디아 교육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탐지카드’ 전 학교 배포

경찰청과 협력해 예방교육 실시
학생 주도 안전문화 확산 기대

전라남도교육청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내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불법촬영 탐지카드’를 배부하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에 나섰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목포 마리아회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불법촬영 Zero, 행복 Dream’을 주제로 탐지카드 전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 모상모 전남경찰청장을 비롯해 학생대표와 1·2학년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전달식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윤종균 목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강사로 나서 △학교폭력 예방 △불법촬영의 심각성과 처벌 규정 △탐지카드 활용법 등을 중심으로 특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불법촬영탐지카드는 화장실·탈의실 등에서 카메라 렌즈를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도구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범죄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카드는 앞으로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순차적으로 배부되며, 각 학교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해 예방 교육 및 실습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대중도교육감은 “학생들이 불법촬영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예방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교가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